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일(수) 총 8매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팀장 문진 440-3976 담당자 조민경 440-3978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공공지원 필요하다
 - 2021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조사 결과 발표 -
 - 코로나로 전면 활동중단 30.6%, 공간확보재정 어려움 37.9% 응답 -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은 인천 관내에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시민들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의 생활문화활동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생활문화 지원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21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여부] 생활문화동아리 중 30.6%가 코로나 19 기간 중에 동아리 활동을 전면 중단, 대면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활동으로 전환한 동아리 28.5%, 제한된 인원으로 대면활동을 지속한 동아리 23.2%, 온라인과 대면활동을 병행한 동아리는 16.2%로 나타났고, ▲ [애로사항] 공간확보(22.3%)와 예산·재정 부족(15.6%)을 어려움

으로 끝았으며, ▲ [활용비용 용도] 동아리 활동비용은 모임장소 대관비 20.4%, 감사비 20.4%, 모임경비·물품 30.5% 순으로 소요되며, ▲ [공공지원 필요항목]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대답한 비율은 60.8%로, 지원 필요항목은 공간지원 35.3%, 전문강사 지원 22.7%, 동아리 운영비 지원 12.8%, 발표 및 활동기회 제공 10.6% 순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 확인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이번 ‘2021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조사’ 결과와 2021년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및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지원사업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처 :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 032-760-1033 / ikong@ifac.or.kr)

붙임 2021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조사 결과 요약

2021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조사

본 보고서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인천 소재 생활문화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시민 55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사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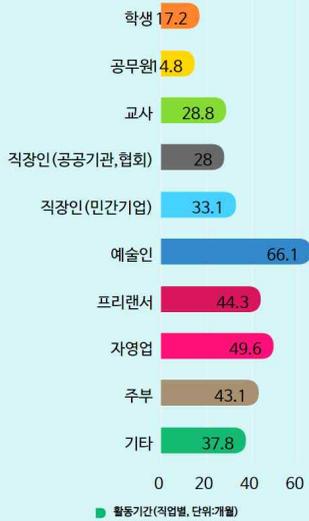
생활문화동아리 <응답자정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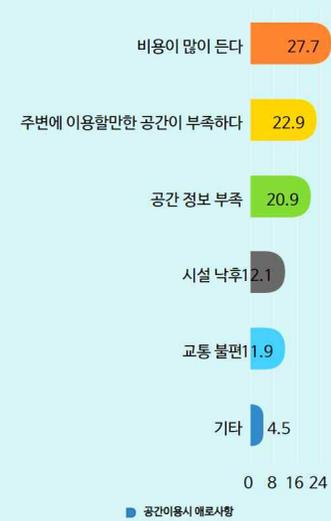
생활문화동아리 <활동기간>



생활문화동아리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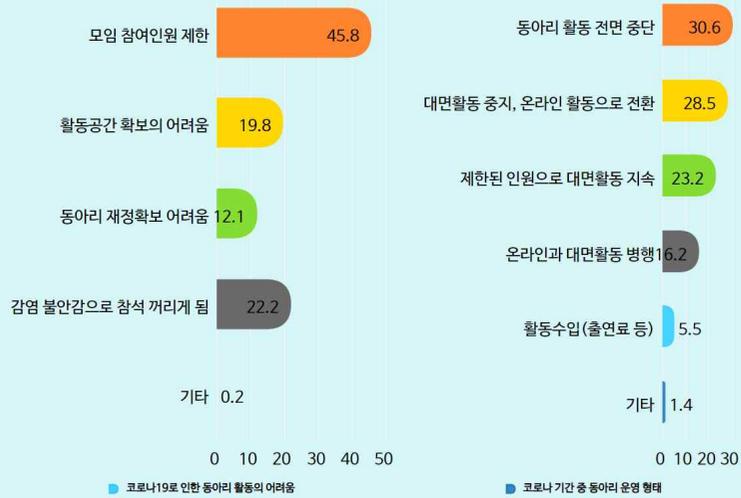
생활문화동아리 <애로사항>



생활문화동아리 <활동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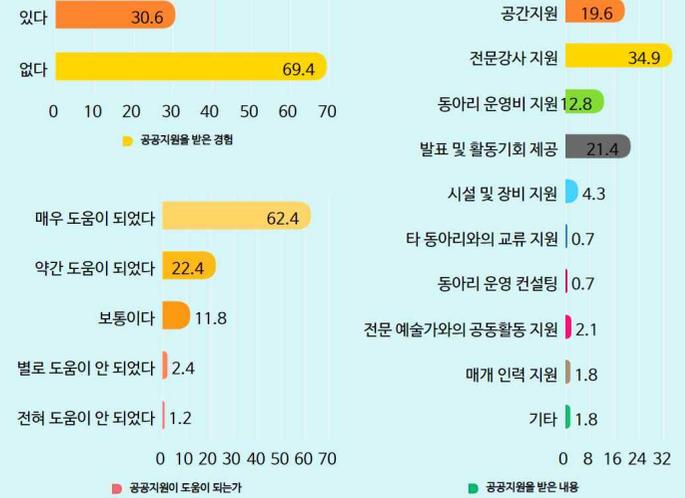
생활문화동아리 <코로나기간>



생활문화동아리 <사회공헌활동>



생활문화동아리 <공공지원 1>



생활문화동아리 <공공지원 2>

